

# 아무나 받을 수 없는 귀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

《마흔에서 아흔까지》 쓴 유경



《마흔에서 아흔까지》  
유경 지음 | 서해문집 | 304쪽 | 값 9,500원

보통스로 주름을 해결해서 예쁜 얼굴은 아니다. 웃을 때 눈가에 주름을 감추지 못하는 우리네 평범한 중년 아줌마다. 그러나 《마흔에서 아흔까지》를 내놓은 유경 씨(프리랜서 사회복지사)의 얼굴에선 예쁨을 넘은 미쁨의 향이 전해진다. 나이들을 즐겁게 받아들이고 사랑한 사람만이 가진 행복의 발현이겠다.

《꽃 진 저 나무 푸르기도 하여라》에 이어 2년 만에 내놓는 이번 책에서 유씨는 그와 동년배인 중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운을 띄웠다. 노년이란 어떤 의미인지, 왜 소중한지, 그리고 어떻게 늙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두루 알려주는 이의 시선은 중년에서 노년에게로 차분히 보폭을 넓혀간다.

“첫 책에선 영화와 문학 속에서 찾은 노년의 모습을 이야기 했었죠. 이번엔 특정 텍스트를 놓고 이야기를 진행하지 않고 현장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15년 동안 사회복지 중에서도 노인복지 분야에 몰두하면서 느꼈던 생각을 정리한 것이지요. 모든 소스는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주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마흔일곱, 동년배인 중년들에게 일러주는 초장의 조언들은 친근한 벼의 충고로 읽힌다. 영화를 봐도, 책을 읽어도, 지하철을 타도 노년을 발견하는 눈 밝은 아줌마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한 마디를 꼭 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아무나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예요!” 라는 말이다. 질병과 전쟁, 사고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맞이할 수 있는 노년은 일종의 선물이다. 그런데 평범한 우리들은 그것을 그저 그런 것으로 여기며 혹은 두려워하며 산다.

사실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 100가지를 제시해 중년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 일은 손쉽다. 지금부터 몇 억대의 돈을 모으란 충고를 얼버무리는 방법도 있고, 노후 테크 전략을 제안하는 실용서도 있다. 그러나 유씨는 어울리지 않는 옷, 재능 없는 분야라고 검사한다. 검사해왔다. 15년 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CBS 방송국 아나운서를 그만둔 후 ‘어르신들’에게로 달려간 것도 돈이나 명예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마냥 좋았기 때문”이었다.

깊게 패인 노년의 나이테를 바라보며 적은 글은 경험과 성찰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법을 택했다. 현장성을 담보한 지침들만 있는가 했더니 철학적 성찰이 묻어난 에세이도 곁들여져 있다. 첫 독자였던 아버지의 간결한 독후감을 인용하면 “읽기 참 편한 글”이다. 무조건 “건강이 중요해요”가 아니다. 노년기 건강을 위해선 아무래도 된장국을 많이 먹어두는 게 좋다는 친절한 귀뜸에선 인간미가 물씬 풍겨온다. 또한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오르내리기, 바쁘지 않을 때 버스 한 정거장 미리 내려서 걷기 등 유씨 본인이 실천하는 노년준비 과정도 적었다. 유씨는 혼자 터득한 게 아니라 주변 어르신들이 말없이 알려주신 거라며 공을 돌린다. 그리고 보니 회색빛머리를 하고 사회에 나와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멋쟁이 어르신들이 그의 곁엔 유난히 많이 있다. 특히 독자들은 “여든여덟 내 남자친구를 소개합니다”에 등장한 ‘아버님’과 자원봉사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유씨의 친정아버지, 시아버지 사연에 흥미를 갖는다고 한다.

“찾아보면 아름다운 노인의 역할모델은 많아요. 제가 남자친구라고 언급한 아버님은 “내가 왕년에…”로 시작하는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이예요. 참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또한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조이라 선생님, 71세에 자신의 꿈을 이루며 등단을 하신 김경선 할머니 삶도 본보기가 될 만한 노년의 모습입니다.”

아무나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니 일단, 노년을 선물로 받은 이들은 이를 고귀하게 잘 간직하고 완성해야겠다. 유씨는 책의 2장에서 노년을 맞은 선배들과 함께 그들의 인생지도를 그려준다. 발걸음을 노년쪽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냄새난다. 느리다”고 떨시받는 노년이다. 지하철, 버스도 외면하는 노년이다. 그런 분들 앞에 “사학년 육반(46세) 유경입니다”라고 통성명을 하는 후배가 나타나니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인생 후배는 건강, 웃음, 친구 그리고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일러주며 “우하하하!” 웃는 것부터 가르쳐 드린다. 한번은 ‘눈맞춤, 입맞춤, 손맞춤, 마음맞춤’을 하자는 유경의 ‘맞춤 프로그램’을 제안해 어르신들을 놀라게 한 경험도 있다. “아무렴 제가 아버님, 어머니들께 쪽하고 입을 맞추라고 하겠어요? 한 목소리로 인사를 해보라는 것이죠”라는 반전으로 웃음을 끌어냈다는 사연이다. 그렇다고 듣기 좋은 말만 할 순 없다. 유씨는 강의 때도 어르신들께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해 드린다고 말한다. “나만 옳다고 고집부리지 마세요. 엄살 부리지 마세요. 잘난 체하는 행동은 삼가세요”라는 애정어린 충고들이다.

강의 그리고 원고를 통해 청년, 중년에게 노년을 알리고 노년에게 행복하게 나이 드는 법을 알려줬다. 그러면서 15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동안 두 딸은 어느새 ‘소녀’로 성장했고, 유씨는 중년역을 출발해 노년역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유씨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 역시 노년으로 가는 준비를 해놓게 돼

감사하다고 전한다.

“식물적 노화라는 말을 무척 좋아합니다. 굳이 꼽으려면 저는 겨울나무형 노년을 맞고 싶어요. 잎 떨근 겨울나무는 말없이 종이나 뽕감이 될 준비를 하고 있지요. 몸과 마음에서 군살을 다쳐 낸 그런 모습으로 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노년 준비 완료!’ 인가? 답은 아니다. 유경 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죽음, 그것을 빼먹지 않고 챙긴다. 늙는다는 것도 서러운데 왜 그 흥측한 죽음을 말하느냐는 편견부터 버리고 존엄한 내 죽음을 준비하자. 그것이야말로 진정 완성된 노년이라는 게 유경 씨의 지론이다. 이제 어머니가 적어둔 ‘리빙 윌(Living Will),’ 즉 ‘생전유서’를 침착하게 글로 써내려간 유씨의 강의는 노년 막바지에 머물고 있다. 중년에서 노년을 밟고 그리고 죽음까지 준비하고 있으니 단순히 노년학이 아니다. 생사학, 인생학이라 부르는 게 정직하고 바른 답이겠다.

고령화 시대가 다가오면서 실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떠오른다.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노인복지를 해보겠다고 할 때 걱정스러워하던 사람들은 이제 “잘 선택했다. 어떻게 그렇게 미리 내다봤느냐”는 부러움 섞인 인사를 건넨다. 노년이 화두가 되는 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유경 씨는 걱정스러움도 숨길 수 없다고 말한다. 노년을 경제논리로만 바라보다간 ‘돈 버는 산업’이란 시각만 남을까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유씨는 노년이 ‘사유’가 되고 나아가 ‘성찰’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중년의 벗들과 어르신들 앞에 선다.

“지금까지 해온 노인복지는 중산층을 염두에 둔 것이었어요. 올해부터는 분야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마침 독거노인들 몇 분을 모아 집을 얻어주고 공동 생활하시는 것을 돕는 프로그램을 준비중입니다. 그간 두려움 때문에 선풍 도전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올해는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유경 씨는 2000년 말부터 ‘어르신사랑연구모임(<http://cafe.daum.net/gerontology/>)’을 운영하고 있다. 웹세상에서의 닉네임은 ‘구슬씨는 실’. 께려는 구슬은 사람이다.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뭘가를 더 께놓는다. 노년, 인생, 어르신, 나이들이라는 수다거리들이다. “지루한 얘기 아니냐?”며 외면하는 청춘들이 있다면 노년전문가의 노년 정의부터 우선 들어보시라. 단순히 냄새나는 나이, 주름이 많은 나이를 의미하는 게 노년이 아니다. 노년은 머지않아 만나게 될 내 얼굴, 즉 내 이야기, 내가 받을 선물에 관한 이야기다. ☞

취재 김정연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